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20 vol.214

TIFFANY & Co.



Our Latest Icon: Tiffany

T

SUBLIMAGE LES EXTRAITS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피부 속 활력을 깨우고 에너지를 채우는 렉스트레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누는 피부 고유의 리듬에 맞춰, 밤 사이 피부 능력을 깨우고 피부 활력을 충전합니다. 발효 바닐라 플레니폴리아와 네롤리 복합체, 그리고 크로노펩티드가 더해진 25% 고농축 오일 캡슐 포물러는 피부 속 활력을 깨우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풍부한 영양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환한 광채로 빛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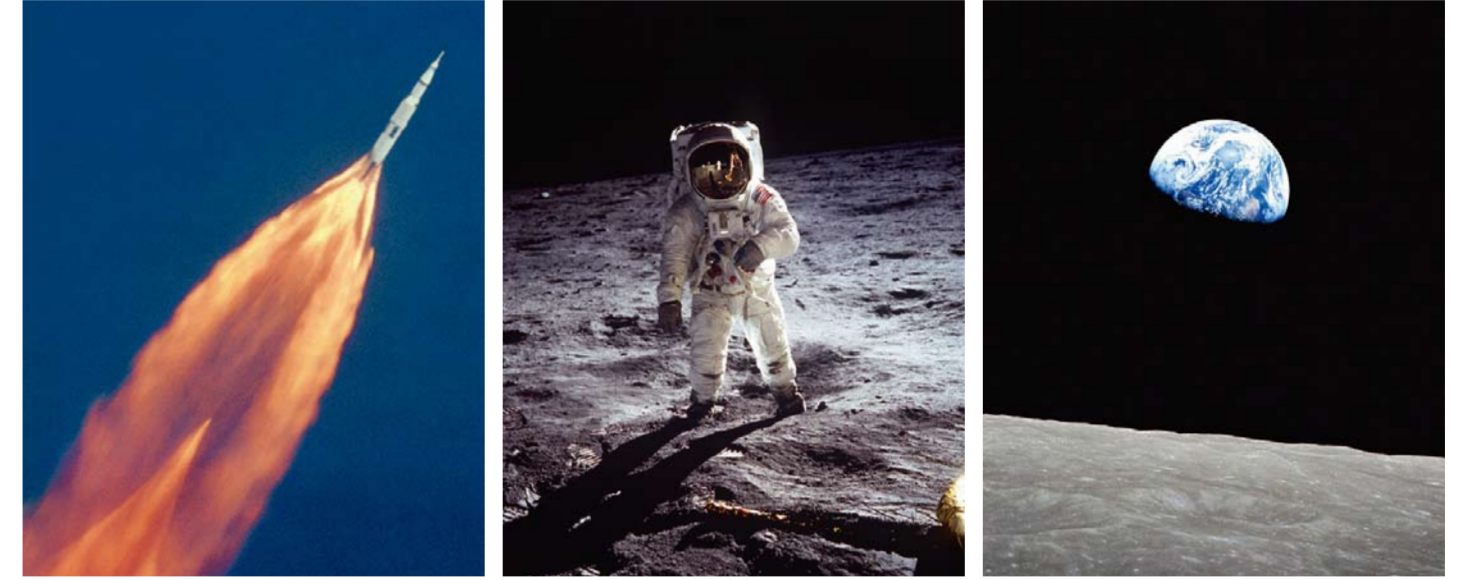
CHANEL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lora Collection
Frivole creations
and Rose de Noël clips.



SPEEDMASTER MOON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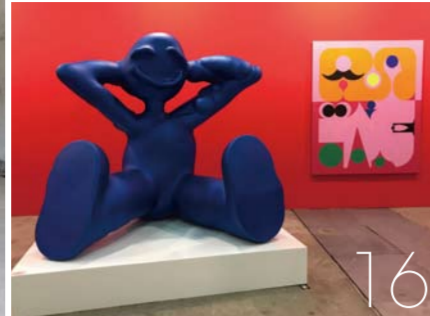
1957년 처음 등장한 스피드마스터의 이야기는 우주 탐험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합니다. 레이싱의 시간 측정을 위해 설계되었던 이 견고한 시계는 NASA의 우주 탐사 미션에서 제미니, 머큐리, 아폴로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서플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피드마스터의 특별한 이야기는 1965년 시작되었습니다. 극한 충격과 압력, 온도 테스트 등 NASA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한 스피드마스터는 이후 모든 우주 비행 미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스피드마스터는 최초로 달에 착륙한 시계로 '문워치'라는 애칭을 얻었고, 1970년에는 아폴로 13호 미션 중 일어난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오메가의 정확한 시간 측정 기술로 우주비행사들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스피드마스터는 최초로 출시되었을 당시의 디자인과 정신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시간을 증명하며 뛰어난 탐험가의 시계로 자리매김해온 스피드마스터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새로운 우주 비행 시대를 기다립니다.





14



16

Style
DECEMBER
2020/12/24

TIFFANY & CO.



Ti

1990년대 초반부터 티파니 주얼리 디자인에 사용된 'T' 모티브에 보트는 한사,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확고한 여성을 위한 티파니 T1 컬렉션은 누구나 쉽게 매일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주얼리를 만든다는 브랜드의 신념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표지 속 티파니 T1 와이프 하프 다이아몬드 한티드 반지는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모던하고 대담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문의 02-6250-862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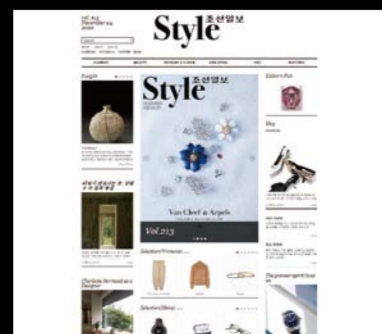


12

- 14 **CHARLOTTE PERRIAND AS AN ARCHITECT** 20세기 초 태어나 모더니즘의 미학을 전파한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의 삶을 반추해보면 영락없는 신여성적 면모가 느껴진다. 당차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던 그녀는 디자인이든 건축이든 자신이 놓인 환경 속에서 재능을 쏟고 펼쳐는 데 바빠 '제약' 따위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지난 호의 디자이너 여정에 이어 경탄스럽기도 아쉽기도 한 건축가로서의 자취를 들여다본다.
- 16 **THE ART FEVER** 지난 11월 초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열린 아트 페어 '아트부산 & 디자인 2020'을 조명해본다.
- 17 **FLOWING WORLD** 오는 12월 중순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대만 추상화가 소피 창(Sophie Chang).
- 18 **PERPETUALLY PRECISE** 천체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정교한 기술력을 담은 IWC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칼린더 워치.
- 20 **TIME FOR HER** 현대적 디자인, 정교한 기술력, 우아한 감성으로 빛어낸 오메가 드 빌 트레저 컬렉션.
- 22 **THE NEW FACE** 오메가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된 한빈과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2MM.
- 23 **FAIR PLAY**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가죽 스트랩 워치 8.
- 24 **ONLY ONE** 손 위 단 하나의 광채, 원 스톤 반지.
- 25 **HAPPY 31st BIRTHDAY** 올해로 31번째 생일을 맞이한 골든듀가 2020 헤리티지 컬렉션을 선보였다.
- 26 **WINTER FLOWERS**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패션 하우스의 F/W 시즌 플라워 아이템 7.
- 27 **FESTIVE MOMENT** 살바토레 페라기모만의 세심하고 우아한 이탈리아 특유의 매력에 깃든 홀리데이 스페셜 아이템.
- 32 **GIFT IDEAS** 화려한 홀리데이 패키지,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 로맨틱한 주얼리와 시계, 낭만과 실용을 안겨줄 특별한 선물 리스트가 여기 있다. 연말을 위한 근사한 기프트 아이디어.
- 42 **IN THE STORY** 우아하고 강한 존재감, 일렉트릭 맥킨의 스토리 백(The Story Bag)에 관한 이야기.
- 43 **URBAN CHIC** 이탈리아 럭셔리 풋웨어 브랜드 호간. 도시 건축물에서 실루엣을, 자연에서 컬러를 따와 완성한 하이퍼테크 컬렉션과 인타렉션 컬렉션을 소개한다.
- 44 **WARM & FUZZY**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페트레이는 최상의 퀄리티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방한 아이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 45 **TIME TO REPAIR** 장자는 동안 수천 개의 오일 마이크로 베블이 피부 감각을 깨워주는 사할 수블리마지 렉스프레 드 뉴.

Style 조선일보

Issue.214 December 2020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합니다.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PARIS



Arceau L'heure de la lune
Time flies to the moon

GPHG
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
2019
Prix de la Montre
Calendrier et Astronomie



한가득 담아

페가수스의 화려한 날갯짓이 마치 새로운 모험을 향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 마법에 걸린 축제의 기운을 전하는 특별 패키지는 피에르 마리가 디자인한 가래 스킨에서 영감을 얻었다. 블랙티 블렌딩, 인센스, 통카 빈이 어우러진 부드럽고 관능적인 향을 전하는 롬브르 드 메르베이 오드파퐁 100ml 본 사이즈와 7.5ml 휴대용 사이즈, 보디로션 3종 등 에르메스의 베스트셀러 향수와 보디 제품을 담았다. 롬브르 드 메르베이 오드파퐁 100ml FEH 세트 2만17천원. 문의 02-310-5174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秀作

매년 시계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보여준 브랜드와 시계에 시상하는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 GPHG),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이 시상식의 캘린더 및 천문학 부문에서 올해 비제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 스타스칼레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름 41.5mm의 골드 케이스에 정교한 칼라바 1120 QPSQ의 메카니즘을 다이얼 위로 투명하게 드러내, 브랜드의 기술적, 미학적 노하우를 완벽하게 구현한 마스터피스로, 퍼페추얼 캘린더와 문레이즈 모두 2100년 3월 1일까지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을 만큼 고도의 정확성을 자랑한다. 문의 02-3479-1879



STYLE X TECH

테크 액세서리를 패션-블로그에 즐기는 방법. (오른쪽 윗부터) 카르 레더 브레이슬릿을 다한 에어팟 프로 케이스 1백15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니크로스처럼 연출 가능한 체인 스트랩 장식 에어팟 케이스 1백26만5천원 **사펠**,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코리 디테일로 어디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골드 파나시 브라스 스마트 워치 케이스 85만원 **팬디**, 문의 02-514-0652 포토그래퍼 **최만영** 에디터 **이혜미**

BE BOLD

12월, 보다 대담한 주얼리로 화려한 감각을 깨울 때다.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주얼리 컬렉션 팬디드 까르띠에는 과감하면서도 우아하고, 섬세함을 지녔다. 팬디의 카리스마 있는 아상적 이미지를 유화적으로 표현해 강렬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한층 간결하고 슬림해진 라인으로 현대적인 맛을 강조했다.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에 오닉스와 블랙 라커, 차보라이트 가닛을 더한 라 팬디 브레이슬릿 2천9백만원. 문의 1566-7277



PARTY SCENE

생각만 해도 설레는 연말, 구찌의 2020 기프트 기빙 캠페인에는 빈찍이는 데일리와 색색의 리본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풍기는 아이 템들이 매혹적인 파티의 세계로 이끈다. 실버 실크 시련 장식 미니 숄더 GG 마몽 백 3백80만원. 문의 02-3452-1921



HAPPY HOLIDAY!

이때면 패션 하우스가 특별히 선보이는 홀리데이 컬렉션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프라다는 하우스의 뉴 백 '클로에'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 컬렉션과 애견용품, 화려한 홈 컬렉션까지 보다 풍성하게 제안한다. 일부 제품에는 재생 니업론인 라-니론 소재를 사용해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도. 블랙과 화이트를 절충한 모노크롬 패턴으로 프라다 특유의 모던함을 입은 오너먼트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에 안성맞춤이다. 한정으로 선보이니 부지런히 서둘러야겠다. 프라다 크리스마스 볼 4개 세트 40만원대. 문의 02-3218-5331



WINTER ESSENTIAL

감각적인 패키지는 덤. 메서운 바림에 트고 길라진 입술을 한 번에 해결해줄 립밤 4. (위부터) **구찌 뷰티 볼은 아 레브르 #1 조슬린 콜레르** 은은하게 빛나는 발색과 풍부한 수분감으로 입술 자체의 자연스러운 매끈함과 텍스처를 강조한다. 바이올렛과 과일 향이 감도는 플로럴 향. 3.5g 4만8천원. 문의 080-850-0708 **사펠 무주 코코 밤** 하이드라 텐드 복합 성분인 지속적인 수분을 공급해 메마른 입술을 즉각적으로 밝혀주고, 풀플립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입술을 연출해준다. 재생 기능으로 잘 알려진 유기 케린과 오일과 만드 복합체를 풍부하게 함유했다. 3g 4만5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립 케어 밤** 밀랍과 칸디다라 왁스로 구성된 포뮬러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 입술을 윤기 있고 부드럽게 해 주어, 색조 제품을 바르기 전 립 메이스 메이커업 아이템으로도 제격이다. 3.5g 8만8천원. 문의 02-310-5174 **바이레드 크로모포비아 립밤** 산뜻한 사용감과 살짝 매트한 피니시로 과한 번들거림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99.8% 천연 성분으로 비건 포뮬러로 연약한 입술에도 안성맞춤이다. 2.5g 6만7천원. 문의 02-3479-168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주이**

감각의 연대기



늦기를, 책 향기를 가득 품은 공간에서 떠나는 사색적인 비행 이슬 (Aëscop)의 문화 예술 마케팅 감각은 늘 참신하지만 '비대면'으로 뒤덮여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올해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기자가 톤 보이는 행사가 가을의 하루를 모처럼 흥만하게 만들어줬다. 장소는 서울 창동동의 프라이빗 도서관으로 입소문이 단단히 난 소년서림(素暲書林). 평소에는 장서로 가득찬 카타란 방 한가운데 팀을 쌓듯 책을 높이 올리고, 그 꼭대기에 오자 해를 '회룡정정'으로 놓아둔 설치 작품이 눈을 사로잡는다. 그 주위에는 각기 다른 제목과 일러스트를 담은 재활용 재료로 만든 상자들을 놓아줬다. 여기에는 감각의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자타 다른 구성의 연할 기프트 컬렉션이 들어있지만 그제 전부는 아니다. 캐서린 맨스필드, 이자벨 에버하르트 등 5명의 다국적 작가가 쓴 작품을 QR코드로 접할 수 있는 문학 여행 초대권이 함께 담겨있으며, 여행이 녹록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집을 떠나지 않고도 다른 세계에 접속해 마음과 감각의 행해를 떠날 수 있도록 초대한다는, 감격의 취지가 아닐 수 없다. **에디 고영연**



눈부신 안녕

한 해와 작별하는 지금 이 순간을 기념하기에 완벽한 하이 주얼리 피스. (위부터) **타사키 코러스 벨리 네크리스** 큰 입사구에 달린 은방울꽃을 형상화한 유려한 디자인의 플래티넘 네크리스. 광채를 극대화하는 독창적인 리피드 리벨리온 컷 다이아몬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2억2천만원대. 문의 02-3461-5558 **피에레 라임라이트 시크릿 & 라이트 컷 브레이슬릿** 필리스 데코 기법으로 실크처럼 섬세하게 세공한 핑크 골드 밴들에 마카조 컷 핑크 사파이어, 핑크 스피넬, 다이아몬드를 세공해 화려하게 파는 베니스 축제의 빛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02 **소피드 하이 주얼리 컬렉션 헤피 다이아몬드 루비 링** 브랜드를 상징하는 무빙 다이아몬드 장식 이톤보이는 화이트 골드 링. 각 1.28카럿. 0.68카럿에 달하는 40개의 루비와 33개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극도로 화려하다. 3천7백15만원. 문의 02-6905-3390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혜미**



SHINE YOUR LIGHT

오메가의 여성 컬렉션을 대표하는 드 빌 트러저 라인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됐다. 푸른 밤하늘의 달빛에서 영감을 가져와 브랜드 고유의 문사인™ 골드 소재가 자신 아름다움을 강조한 이터널피스는 옐로 골드보다 연한 색을 띠며, 시간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는 것이 특징. 지름 36mm의 케이스 측면을 따라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컬렉션 최초로 실크 패턴의 메시 메탈 브레이슬릿을 장착했다. 덕분에 손목에 우아한 광채를 더한다. 문의 02-511-5797



크리스탈 핸들로 장식한 레드 새틴 백, 15X14cm, 2백38만원 **지미추**.

메탈 소재 브레이슬릿 가락 미장 **사넬**.

브라스로 마감된 케이스 90만원 **루이 비통**.

스테인리스 스틸 오프 화이트 아사시테 이펙트 에디션 **루이 비통**.

에르메스 로고 크로싱 스트랩이 돋보이는 스텔라이트 힐 1백88만원 **루이 비통**.

다이아몬드를 다한 아트 콜라지 디자인 2백64만원 **아르노**.

부드러운 양귀비 장단 1백22만원 **에르메스**.

그레이트 캐릭터 엘비스 프레슬리 카프스 링크 58만원 **몽블랑**.

블랙 브레이슬릿 미장 **토즈**.

메이퀸 스퀘어 자켓으로 30년째 주선하는 **안토니 바카렐로**.

Selection

블링 블링, 연말 분위기를 한층 돋우는 화려한 아웃핏.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스타가 화려한 쇼퍼 콜라지 백, 30X23cm, 1백48만원 **에르메스**.

블랙 더블 브레이저 4백55만원 **루이 비통**.

메탈 에디션 콜라지 디자인 오프 화이트 아사시테 이펙트 에디션 **루이 비통**.



루이 비통 02-3432-1854 **지미추** 02-3443-9469 **에르메스** 02-542-6622
사넬 080-200-2700, chanel.com **루이 비통** 02-514-0652 **아디르** 02-3479-6120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몽블랑** 1670-4810 **모엣 & 샹동** 02-2188-5100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토즈** 02-3438-6008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존 바버토스 02-3443-1805 **빌렌티노 가브리엘리** 02-2015-4653 **발랑** 1599-0007

john varvatos

ARTISAN
the fragrance for me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Everything is linked; the body and the mind; mankind and the world; the earth and the sky.' Charlotte Perriand

The Women Who Inspire Us_11 Part II

Charlotte Perriand as an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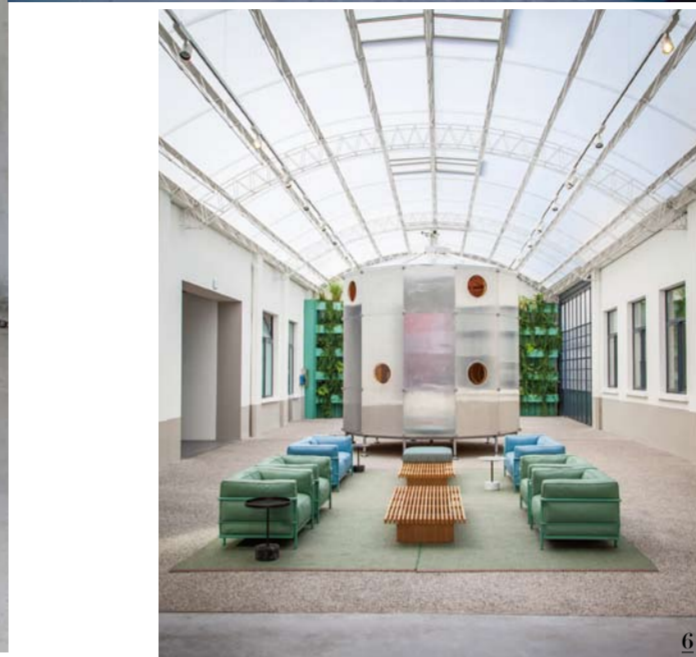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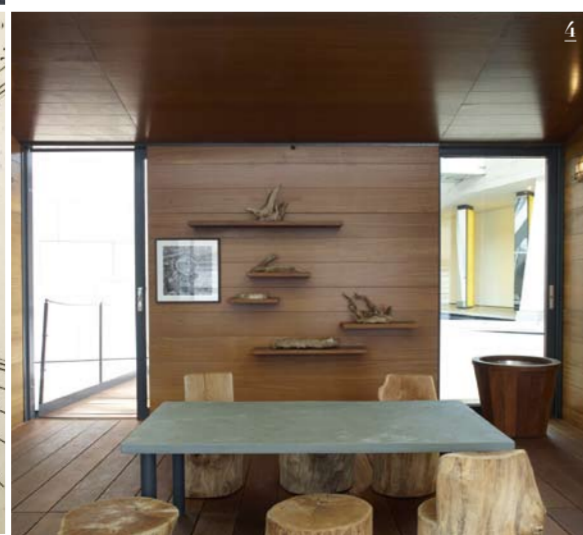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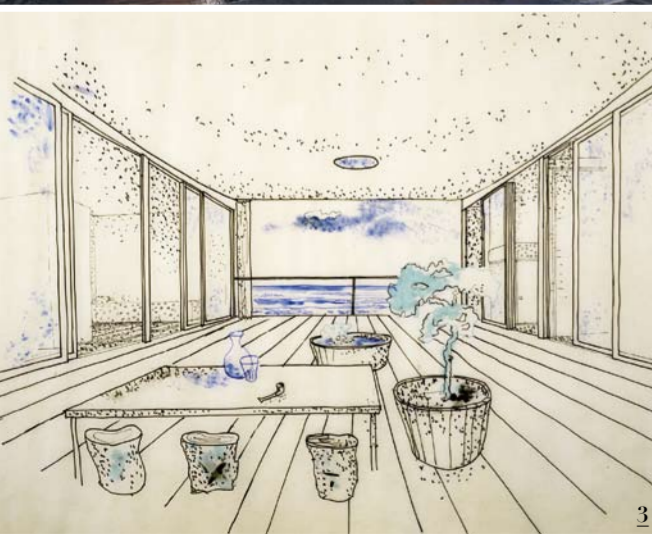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있다. 3년 전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신여성 도착하다>라는 전시도 열렸는데, 당시의 도록을 인용하자면 신여성성은 1890년대 영국의 'New Woman' 열풍에서 출발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새로운 여성성의 아이콘이다. 근대적 지식과 문물, 이념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여성에 다름 아니다. 20세기 초 태어나 모더니즘의 미학을 전파한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의 삶을 반추해보면 영락없는 신여성의 면모가 느껴진다. 하지만 유리 장벽에 둘러싸인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당차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던 그녀는 디자인이든 건축이든 자신이 놓인 환경 속에서 재능을 쏟고 펼치는 데 바빠 '제약' 따위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건축계에서 20세기의 그녀는 어떻게 창조적 행보를 펼쳤을까? 지난 호의 디자이너 여정에 이어 경탄스럽기도 아쉽기도 한 건축가로서의 자취를 들여다본다.

브랜드 차원에서 신비로운 인물을 뮤즈로 삼는 일은 그다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난봄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Aēsop)에서 향수를 새로 선보이면서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을 내세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절로 귀가 쫑긋해졌다. 그녀의 긴 커리어 여정을 돌아보는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을 위한 프리뷰 행사를 작년 봄 밀라노에서 참석했던 인연도 있거니와 페리앙에게 영감을 받아 향수를 만든 프랑스인 조향사를 몇 차례 만난 적도 있던 터라 자연스레 관심이 치솟았다. 의아하기도 했다. 아무리 '여성'이 문화 예술 생태계의 '핫한' 키워드라고 해도 1세기도 더 전에 태어난, 전설의 여배우도 아닌 샤를로트 페리앙(1903~1999)을 어

췌서 뮤즈로 삼았을까. 게다가 흔히 하는 방식처럼 그녀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패키지 디자인을 내놓기보다 굳이 '향 자체'에 초점을 맞췄는지도 궁금했다. 하지만 이솝은 역시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꿰고 있었고, 조향사인 바나베 피용도 진정성을 담아 작업에 임한 듯했다. 페리앙은 평생에 걸쳐 자연을 누비면서 야외 활동을 즐겼는데, 피용은 그녀의 이름을 딴 일본 장미와 그녀와 함께 작업한 목수들의 작업장, 알프스산맥의 상쾌한 등을 아우르며 그 정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냈다. 이 향수를 수식하는 '강렬한 부드러움은 창조적 주체로서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그렇지만 조화롭게 살았던 페리앙의 행보와 닮은 구석이 있다. 모더니즘 거장이었던 르 코르뷔지에의 협력자로 디자인계에서 LC 시리즈로 일컬어지는 명품 가구를 남겼지만 페리앙은 사실 인간과 자연의 통합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삶의 예술'을 꿈꾸던, 주거와 공간, 건축을 둘러싼 큰 그림을 그리던 인물이었으니까.

주거의 혁신, 근대성을 담은 공간을 그리다

대담하고 에너지 충만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류를 넘치는 샤를로트 페리앙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산에 올라 벗은 구두를 천 양손을 하늘을 향해 뻗은 나체의 상반신. 등이 흰히 드러나는 구도인 터라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총기 어린 눈으로 포효하는 젊은 그녀의 환희가 절로 느껴진다. 당시 르 코르뷔지에와 그의 사촌 피에르 잔느레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페리앙의 자신감도 엿보인다. 여성, 그것도 신에게 가구와 공간 디자인을 넘



10 이솝(Aēsop)이 샤를로트 페리앙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모즈 오 드 퍼뮌'을 선보이면서 서울 성수동 코사이에 위치한 전시 공간. 'Everything is linked; the body and the mind, the mankind and the world, the earth and the sky.' 사진: SY Ko 2, 4 페리앙의 미완성 작품을 루이 비통의 후원으로 구현한 'La Maison au Bord de l'au' (물가의 집, 1934), Reproduction 2019 with the participation of Sice Previl, View of the installation,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 October 2 2019 - February 24, 2020. Artist credit, © Adagp, Paris, 2019 Photo credit, © Fondation Louis Vuitton/Marc Domage 3 물가의 집 스케치(1934), © ACHP 5 고신자대의 레자크 스키 리조트, Charlotte Perriand, Gaston Regaraz (architects), Guy Rey-Millet/AAE (site manager), La Cascade residence, Arc 1600 (1967-1968), © ACHP 3, 5번 런던 디자인 뮤지엄 제공.



나들며 활약한다는 건 아주 드문 경우였으니 말이다. 더구나 그 기회는 스스로 창출한 것이었다. 1927년 파리의 전람회 살롱 도톤(Salon d'Autonne)에서 선보인 페리앙의 부엌 '지방 아래의 바' (Le Bar Sous le Toit)가 처음에 퇴짜를 놓았던 르 코르뷔지에의 마음을 돌려놓았는데, 니콜로 도그한 바 등 금속 재료를 활용하고 수납을 살리며 기하학적 구조를 띠면서도 마치 도시의 온실처럼 연상시키는 '공간은 그만쯤 싸수가 남달랐다. 그 뒤로 르 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와 10년간 3인방으로 함께하면서 LC 시리즈로 내놓은 협업물 이든 나중에 그녀만의 독자적인 아카이브로 꾸집어낸 것이든 그녀의 가구 디자인은 대부분 이탈리아 가구 회사 카시나(Cassina)에서 제작하고 있으므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다. 안 타깝게도 공간 디자인이나 건축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디자인이냐 건축가로서 그녀의 빼어난 역량이 점점 더 재조명되면서 자료 사진이나 각종 전시를 통해 접할 수는 있다.

작년 가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린 페리앙의 회고전은 모더니즘의 지평을 확장하고 일상의 혁신을 지향했던 '설계자로서 그녀의 면면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중에는 1929년 살롱 도톤에 3인방으로 출품한 주거를 위한 설비가 자주 언급되는데, 벽 대신 반듯한 수납용 캐비닛이 채우고 있고, 다이닝 룸과 거실을 겸한 공간이 있으며, 욕실마저 주거 공간으로 편입시키면서 공간의 단절을 없애는 시도도 당시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설비'라는 용어 자체가 장식적인 인테리어와 건축을 구별하던 관습을 타파했다고 여겨진다).

자연으로의 회귀, 인간을 향한 애정을 담다

샤를로트 페리앙이 이처럼 20대 시절 일따라 선보인 주거 공간 디자인은 모더니즘이 각광받던 그 시절 '여성'과 '건축'에 얽힌 고정관념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건축 사학자 메리 맥레오드(Mary McLeod)는 당시 페리앙이 전람회에 내놓은 주거 디자인을 보면 '과학적 설계'와 '기능주의'가 그저 냉성의 전유물 같은 관심사가 아니라 가사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여성의 비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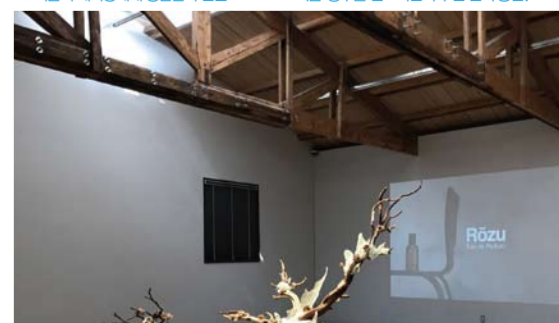
소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스스로를 위한 공간이었던 생-쉴피스(Saint-Sulpice) 스튜디오나 '워크 & 스포츠'라는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더라도 콧소내의 튜브 가구라든지 편리한 '개방형' 동선 등 근대적인 아파트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볼 수 있다. 자동차계와 영화계에서 영감을 받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곱씹은 페리앙은 20세기에 여성 인권 신장을 주장하던 페미니즘 세력은 아니었지만 모더니즘을 이끈 흔치 않은 여성 기술로서 활발한 행보를 펼치며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했던 셈이다. 페리앙은 1930년에 접어들면서 차가운 기능주의에 찬찬한 듯한 경향으로 흘러버린 모던 디자인을 넘어 자연미가 깃든,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에 애정을 쏟았다. 1934년에 구상해 <오늘의 건축>이라는 잡지에서 수장한 '물가의 집' (La Maison au Bord de l'au)이 그 같은 관심이 반영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꼽힌다. 지나치게 현대적(modern)이라는 이유로 스케치로만 남은 미완의 작품이었지만 페리앙 재단과 루이 비통, 카시나 등의 다각적 협으로 7년 전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처음 선보였고,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회고전에도 등장해 화제가 됐다. 노동자 가정을 위해 지었다는 조립식 건축물은 내부에 통나무로 만든 가구가 아기자기하게 자리하고 있다. 또 동시대의 가구와 예술품이 어우러진 '젊은이를 위한 집' (Maison du Jeune, 1935)이라든지 로켓처럼 생긴 유목 건축물 '레퓌주 톤노' (Refuge Tonneau, 1938) 등도 자연으로의 회귀를 담고 있다. 그 정점을 보여주는 건축물은 레자크(Les Arcs) 스키 리조트다. 산비탈과 절을 같이 하듯 누워 있는 이 건축물은 자연과 산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녹아 있는 듯하다.

인택의 허브, 예술과 삶의 통합을 추구하다

르 코르뷔지에 스튜디오에서 나와 독자 노선을 걷은 1937년 이후 페리앙의 다채로운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극동 아시아에 체류하면서 장인 정신이 깃든 공예에서 신선한 영감을 얻었는데, '선택-전통-창조'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훗날 유네스코를 위

해 만든 '메종 드 테' (Maison de Thé, 1993)는 자연과 동양 문화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애정이 담긴 작품으로 '장소와 문화의 대화'를 꾀하는 사색의 공간으로 호평받았다. 페리앙은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적 지평을 넓히면서도 인택의 끈도 놓지 않았다. 특유의 활달하고도 자신감 어린 성격은 성별이나 위계를 떠나 주위의 동력을 무치게 하는 자식 같은 힘을 발휘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이 중지부를 찍으며 '재건' 열풍에 휩싸인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페르낭 레제, 파블로 피카소, 알렉산더 칼더 등 당대의 예술가 친구들을 한데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기도 했다. 당시(1947년) <엘르> 매거진은 그녀를 상상 속 여성 정부의 '재건부 장관'이라 칭했다고.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의 회고전 도록 제목처럼 페리앙은 매 순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간'(inventing a new world) 게 아니었을까. 글 **고성현**

6 파란 기둥으로 설계해 사람의 등고에 이통할 수 있는 유목 건축물 '레퓌주 톤노' (Refuge Tonneau, 1938). Photo by Stefano De Monte. 사진 제공 카시나 7 서울 청담동 복합 매장 10 르코르스 코소 서울에서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샤를로트 페리앙 개인전. 알프스 산맥에 올라 자연의 정기를 흡수하는 샤를로트 페리앙의 사진과 그녀가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제공 10 르코르스 코소 서울 8 르 코르뷔지에 스튜디오에서 살롱 도톤에 선보인 '주거를 위한 설비' 전시 재현. 'Charlotte Perriand, Le Corbusier, Pierre Jeanneret - Interior equipment of a home - Salon d'Autonne 1929'. Reconstruction 2019 with the participation of Cassina & Sice Previl as well as the scientific council of Arthur Rugg - View of the installation,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 October 2 2019 - February 24, 2020. Artists credits, © F.L.C. / Adagp, Paris, 2019 © PJ/Adagp, Paris, 2019 © Charlotte Perriand/Adagp, Paris, 2019 Photo credit, © Fondation Louis Vuitton/David Bordes 9 페리앙의 생-쉴피스 (Saint-Sulpice) 스튜디오를 재현한 모습. Charlotte Perriand - L'atelier de Saint-Sulpice (1927-1928). Reproduction 2019, View of the installation,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 October 2 2019 - February 24, 2020. Artists credits, © Adagp, Paris, 2019 Photo credit, © Fondation Louis Vuitton/Marc Domage 10 이솝이 페리앙에게 영감을 받아 만든 '모즈 오 드 퍼뮌' 향수를 선보이면서 꾸린 전시 공간.



아트부산&디자인 2020

the art fever

연말이 되어가면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실물'로 접하는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갈망이 더해진 덕분일까? 지난 11월 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아트 페어 아트부산 & 디자인 2020은 유독 미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온라인 뷰잉룸(11월 6~20일)도 함께 꾸러지기는 했지만 모처럼의 오프라인 아트 페어에 다각도로 관심이 쏠리면서 VIP 프리뷰 첫날(5일)에만 4천 명이 넘게 몰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때마침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내세운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의 기획전 등이 겹치는 바람에 온통 '아트'로 달아오른 부산. 자주 가도 늘 기분 좋아지는 이 항구도시를 늦가을에 다시금 찾았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아트부산은 행사명까지 아트부산 & 디자인으로 바꾸면서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를 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 계획을 급히 수정해야 했다. 행사 날짜를 바꾸고(5월 말에서 11월 초) 예년에 비해 규모를 키우기는커녕 절반 이하로 대폭 줄였다(지난해 국내에 1백64개 갤러리 - 70개 갤러리), 대신 프리미엄을 지향했다. VIP 프리뷰도 하루짜리가 아니라 기간 내내 일정 시간대에 진행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꾀했다. 그 결과, 현장 반응이나 부스 판매 등 전반적인 성과가 지못 '궁장작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조현화랑은 김중학 작가의 작은 꽃그림 20점을 부스에 내걸었는데, 오후 한 자 바로 '열판'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렇듯 막을 올리자마자 작품 판매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쾌재를 부른 갤러리가 여럿 있다. 애초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적절한 노선 변경으로 작파란 내실 있는 페어는 '핑'을 얻은 것.

국내의 갤러리의 조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감각까지 아우르다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욕망, 그리고 지난해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유럽 화랑이 참가해 거둔 실적이 나쁘지 않은 덕분이었을까? 명디이 대폭 축소된 외경에도 글로벌 아트 페어를 다녀왔다면 꽤 익숙하게 느껴질 이름들이 아트부산 & 디자인 2020 현장에서 눈에 띄었다. 작년에 이어 라-히 갤러리(König Galerie), 페레스 프로젝트(Peres Projects) 같은 독일 갤러리가 부스를 차렸고, 오스트리아의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뉴욕 기반의 글래스톤 갤러리 등 명성 높은 화랑이 새롭게 합류했다. 독일 신표현주의 회화의 거장으로 거꾸로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유명한 게오르크 바셀리츠(Georg Baselitz)의 대작을 내건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은 인도나 공리, 알렉스 카츠 등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작가를 비롯해 올리버 비어 같은 떠오르는 작가도 함께 선보였는데, 단연 무개간이 돋보였다. 지난해 도나 후안카(Donna Huanca)의 인상적인 회화 등으로 인기를 끈 베를린 기반의 화랑 페레스 프로젝트는 올해도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인 부스를 꾸렸다.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앉아 있는 퍼린색 대형 조각(오르티 리 작가)을 비롯해 내년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소개될 아르헨티나의 에드 마늘라니 등 참신한 여성 작가의 작품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리안 마틴, 탕 켈렐라리 등 제법 글로벌 아트 페어 분위기가 나는 해외 갤러리의 리안업과 더불어 국제갤러리, 가나이트, 갤러리현대, PKM갤러리 등 대다수 국내 메이저 화랑은 물론 말쑥한 세대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기욤진(아트 액센트), 아트 토이 등 국내 갤러리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보통의 갤러리전 등으로 전환적인 패턴이나 다양한 편이었다.

'브랜드' 아트 페어로 가는 길, 다채로운 문화 예술적 토양이 필수!

사실 아트부산 & 디자인 2020 전시 공간의 구성은 마냥 '빠아'하고 할 수는 없었다. 일단 장소의 한계로 작년처럼 곳곳에 놓였던 설치 작품이나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인해 미술 장터의 건조함을 달래주던 공간의 미학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그나마 이배 작가의 대형 작품(조현화랑)이 갤러리 설치 프로젝트 맥스퍼미트의 일환으로 부스가 아닌 통로에 존재할 있게 전파했고, 또 다른 부산 화랑인 갤러리 604는 자체적으로 부스를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 기욤타 다다사의 작품으로만 채웠는데, 특히 대형 캔버스에 담긴 8점을 하나씩 붙여 한 벽을 길게 메운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공식 행사명에 디자인이 추가되었음에도 정작 그 이름에 어울리는 디자인 부문 콘텐츠는 빈약한 편이었다는 점도 아쉽다. 하지만 올해는 워낙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트와 디자인을 키워드로 삼은 페어는 내년을 기대할 법하다. 아트 페어 해안으로 부산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아트 도시'로 발돋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홍콩의 아트 바젤처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만한 아트 페어의 무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저 매년 결이 비슷비슷한 갤러리들의 미술 장터가 지속되면 관람객은 실증 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골목마다 사연이 묻어 있는 구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술 마을 등 도시의 고유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축제처럼 거듭나야 비로소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인 요소는 부산의 아트 신이 한층 풍부해지고 미술 소비나 감상에 대한 자원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호평받았던 부산비엔날레의 주요 기점인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벡스코 전시장 옆에 자리한 부산시립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동시대 미술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중국 동시대 미술의 대표 작가(주진스, 송동, 류웨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획전 <성흔을 넘어>, 그리고 비디오아트의 가장 빌 비올라 개인전이 열려 아트 페어로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 강하게 이끌었다. 아니면, 반대로 빌 비올라를 보러 갔다가 아트 페어에 들러 그림 한 점을 살 수도 있었겠다. 글 **고성연**



1

1 지난 11월 5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8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아트부산 & 디자인 2020에서 첫날 개관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김중학 작가의 그림 20점(조현화랑), 부스 입구를 장식한 '꽃 그림(2호 사이드)' 행렬은 공간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2 아나스 쿠벨리스, 데니스 오렌하임 등의 작품을 선보인 우수갤러리 부스. 3 이우환, 고영훈, 나관요시모토, 데이비드 호크니 등 대가들의 작품을 내놓은 기욤진. 4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뉴욕 기반의 글래스톤 갤러리는 우고 폰타네, 에도아르도, 아키카 이, 세라 루카스 등 다양한 스타 작가 작품을 선보였다. 5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갈로리 타데우스 로팍은 올해 처음으로 합류해 게오르크 바셀리츠, 알렉스 카츠, 이블 등 세계적인 작가들은 물론 떠오르는 작가들도 소개했다. 6 부산 화랑 갤러리 604는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욤타 다다사의 작품만 선보이는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7 지난해 인상적인 부스를 선보인 베를린 기반의 갤러리 페레스 프로젝트는 올해도 눈에 띄는 공간 구성으로 인기를 끌었다. Photo by SY Ko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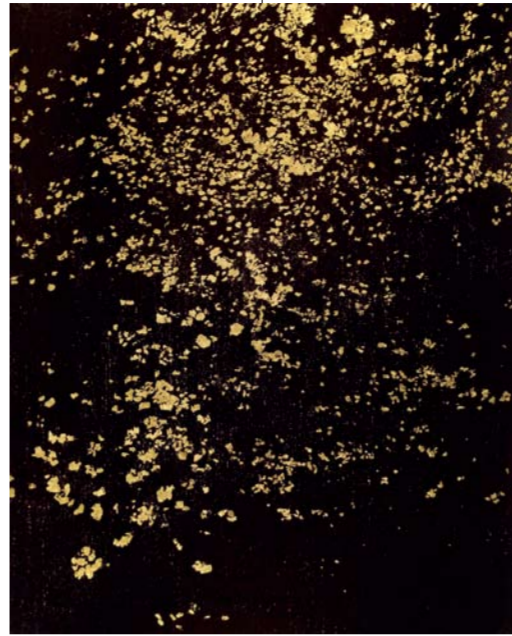
5



6



7



Dancing Wind I (2020), 227X182cm, Ink, gold leaf and acrylic on canvas



The Immeasurable IV (2018), 72.8X60.5cm, Acrylic on canvas



Flowing World (2020), 227X182cm, Oil, ink and acrylic on canvas

영상 통화가 연결되자 웃음 가득한 소피 창이 모습과 더불어 그의 뒤로 벽을 빼곡하게 메운 대작들이 눈에 들어왔다. 노트북을 든 채 직접 스튜디오를 안내는 그에게 다할 나위 없이 근사하고 쾌적해 보이는 작업실 환경을 언급하자 "남편이 마련해준 곳"이라며 미소 지었다. "제가 예술가의 길로 들어선 뒤 해마다 일도 많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아깝잖아 지어준 남편이 바로 남편입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니까요." 소피 창이 처음 미술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부터다.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 학습반이 정원에 미달되자 머릿수를 채워주기 위해 들은 수업이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창작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한 그는 "운명의 업을 찾게 됐다. 그리고 70대 중반인 지금껏 14년째 화업을 이어오고 있다. 우연히 미술의 길에 들어선 이래 자연을 소재로 한 추상 산수화 작업에 꾸준히 몰두해온 소피 창은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만의 창작 리추얼인 셈이다. "작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작업할 때면 늘 보살의 마음을 연상하며 임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를 화면에 옮기고 싶거든요." 다년간의 명상은 그에게 감정을 포착하고 세속 너머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을 깨닫게 해주었다. 명상에서 시작해 작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련을 통해 내면의 불안과 화합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화면을 구현해낼 수 있었다고.

수묵 아닌 유화로...

전통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추상 산수화

이렇듯 불교 수행 방식을 따르는 작품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 소피 창은 작품 내용과 형식을 보더라도 동서양을 자유로이 오간다. 동양 산수화의 기법에 캔버스, 아크릴, 오일 등 서양 재료를 접목해 독창적인 화면을 창조한다. 이를테면 먹과 한지를 유화와 캔버스로 대체하고 아크릴과 아교를 섞고 금박을 클라주하는 식이다. 동시에 전통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중 핵심 기법은 지묵법(漬墨法)이다. 먹의 수성에 따라 스며드는 특성을 강조하는 이 기법을 통해 자연의 역동성과 생동하는 듯 강한 에너지를 표현한다. "전통 중국 화인사에서의 기운생동(氣韻生動)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지묵법을 차용하게 됐다. 제 작업 과정에서 '기'는 빛의 속도감, '운'은 전체 화면의 리듬이라면, '생'은 화면 공간의 확장인 생장(生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은 바로 생동하는 에너지의 표현으로 작품을 재조하는 행위에도 걸맞아요." 전통 산수화의 현대화를 위한 도전에 골몰한 만큼 그가 작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점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다. 중국 산수화에 야박이 존재한다면 작가는 공백을 클라주로 채워줄 태고, 더욱 유연하고 밝은 느낌의 화면을 위해 흑백이 아닌 색채를 도입했다. 유화와 수묵을 함께 사용해 전통화와 사인화의 화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그가 화려하고 강렬한 컬러를 즐겨 사용하는 이

유이기도 하다. "다채로운 색을 통해 생명력을 균형 있게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제게 있어 색깔이란 저 자신에 잠재된 내면의 균형이예요."

<스머들다, 점점 더: 소피 창>,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 첫 개인전

오는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아트조선 기획전 <스머들다, 점점 더: 소피 창>은 한국 관람객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다. 작가가 10여 년간 몰두해온 추상화의 새로운 변주를 보여주며 근작부터 신작까지 6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타이틀은 작가 고유의 화법을 뜻하는 동시에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은 것이다. "전시명은 제 작업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스머들다'가 지묵법과 관련된 기법이라면, '점점 더'는 불교 수행의 정수(漸修)에서 따온 것으로 예술적 수행을 의미하죠. 제겐 지묵법 자체가 예술 창작의 중심부로 더욱 심도 있게 들어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방한이 어려운 탓에 소피 창은 이번 전시에 몸소 발걸음을 옮기지는 못한다. 그러나 전시 오프닝 리셉션을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zoom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따라서 행사 당일 전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작가와 만날 수 있다. 문의 02-724-7832 글 **윤다람**(아트조선 기자) **에디터 고성연**

flowing world

Interview with **Sophie Chang**

오는 12월 중순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대만 추상화가 소피 창(Sophie Chang). 그는 미술가로서의 경력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를 꽤 빠르게 쌓아온 작가다. 전통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추상화로 명성을 얻은 그에게는 작가로서의 이력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TSMC 창업주 모리스 창(Morris Chang)의 부인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며 작업 중인 소피 창이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앞둔 소감을 영상을 통해 전해왔다. 화상 통화로 만난 그의 인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쏘쿨(so cool)'이었다.



인물: 추상화가 소피 창

1939년 포르투갈 항해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로 정확한 포켓 워치 무브먼트를 장착한 손목시계를 제작하며 IWC의 포르투기저 컬렉션이 탄생했다. 브랜드가 전개하는 여섯 가지 컬렉션 중 가장 많은 오토 오텔로제리의 걸작을 보유한 대표 컬렉션으로, 심플한 이리히아 숫자 인덱스와 가는 잎사귀 모양의 핸즈 등 특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포르투기저 컬렉션을 통해 선보이는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시, 분, 초, 날짜, 요일, 연도, 문페이즈 등을 모두 하나의 다이얼 위에 담고 있음에도 조작이 매우 쉽고 간편하다는 것. 동기화된 메커니즘을 갖춘 덕분에 시계 우측의 크라운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세팅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퍼페추얼 캘린더는 매달 달라지는 날짜 수와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의 경우 오차가 5백77.5년에 단 하루에 불과할 만큼 고도의 정확성을 자랑한다.

4개의 서브 다이얼로 캘린더 정보를 표시하는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부티크 에디션. 날짜, 요일, 월, 문페이즈를 포함해 4자리 수 연도와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를 갖추었다. 지름 44.2mm의 18K 아머(Armer) 골드 소재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 골드 도금 핸즈를 장착했고 스톤나사의 블루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더해 더욱 고급스럽다. IWC 자체 제작 무브먼트 52610으로 구동하며 1백68시간의 안정적인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오직 IWC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4천7백70만원 IWC.



perpetually precise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지닌 IWC의 포르투기저 컬렉션에 친체의 신뢰로운 아름다움과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교한 기술력을 담았다. 연말연초를 기념하는 특별한 선택이 될, IWC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IWC



(왼쪽부터) 지름 44.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은은한 실버 도금 다이얼, 다크 브라운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의 조화가 우아한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를 통해 IWC 52610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4천7백70만원. 각각 3시·6시·9시 방향에 위치한 3개의 서브 다이얼로 날짜, 월, 요일을 표시하며 달의 주기와 윤년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42. 세라믹 부품을 사용한 IWC 자체 제작 82650 칼리버의 플라톤 와인딩 시스템이 최대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실버 도금 다이얼을 장착한 지름 42.4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브라운 컬러의 스톤나사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더했다. 4천500만원 모두 IWC. 문의 02-3440-5876 에디터 이혜미

time for her

현대적 디자인, 정교한 기술력, 우아한 감성으로
빛어낸 오메가 드 빌 트레저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OMEGA

문샤인™ 골드 케이스 측면에 따라 387개의 다이아몬드가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드 빌 트레저 쿼츠 36MM.
화이트 다이얼 위 숨겨진 로마 숫자 인덱스, 문샤인™
골드 핸즈를 대칭, 크라운에는 오메가 로고 57를
감춰 레드 세라믹 플라워 모티프와 상급 다이아몬드를
장식했다. 화이트 러버 스트랩을 장착해 실용성과
완동성을 보장하며, 손목에 화사함을 부여한다.
배터리의 수명을 극대화하는 롱 라이프 기능을 장착한 쿼츠
무브먼트, 오메가 4061로 구동한다. 1천만원대 오메가.

(위부터) 투명하게 레커 처리한 블루 유백색 PVD 다이얼과
스틸 케이스, 블루 레더 스트랩이 어우러진 드 빌 트레저
쿼츠 36MM 5백만원대, 레드 컬러 레커 다이얼과 레드
레더 스트랩의 조화로 대담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매력에
발산하는 드 빌 트레저 쿼츠 36MM 5백만원대,
문샤인 골드™ 크라운 인덱스와 핸즈를 장착한 스테이브라운
다이얼에 크로커우일 프린트 카프 레더 스트랩을 더해
기품이 느껴지는 드 빌 트레저 쿼츠 36MM 5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제품으로 쿼츠 무브먼트 오메가 4061을
장착했다. 문의 02-3467-8632 에디터 **이혜미**



the new face

배우 현빈이 국내 최초로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브랜드 오메가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됐다. 그리고 첫 번째 행보로 짜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2MM와 함께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선보인다.

현빈, 오메가 글로벌 홍보대사가 되다

우주, 스포츠, 해양, 항공, 예술, 문화 등 분야를 막론하고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오메가. 이들의 앰배서더로 선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배우 조지 클루니, 니콜 키드먼, 에디 레드메인, 모델 신디 크로퍼드, 알레산드라 엠브로시오, 카이아 거버, 골프 선수 그레 노먼,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등 오메가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유명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각자가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있고, 끊임없이 목표에 도전하며, 노력을 통해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이들이라는 것이다.

올해 11월, 오메가는 또 한 명의 새로운 브랜드 앰배서더를 발표했다. 한국 최초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된 배우 현빈이 그 주인공. 오메가의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은 "현빈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과감하고 당당하게 묘사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가 커리어에서 추구하는 탁월함, 섬세한 디테일은 오메가가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와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와 함께 공개된 화보 속 심플한 블루톤에 오메가의 짜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2MM를 착용한 현빈은 모던한 동시에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벌써부터 브랜드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모습.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져온 오메가의 새로움을 향한 도전과 개척 정신은 수많은 첫 번째 발자국을 남겼다. 앰배서더로서 오메가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하며 함께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는 그의 소감처럼 앞으로 펼쳐질 배우 현빈과 오메가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 문의 02-3467-8632 에디터 **이혜미**

유서 깊은 탐험 역사를 상징하는 짜마스터 컬렉션의 짜마스터 다이버 300M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2MM, 스틸과 세드나™ 골드 소재의 조화가 세련된 브레이슬릿 모놀리thic 돌출 패턴을 새긴 블루 세라믹 다이얼, 블루 세라믹 베젤이 멋스럽다. 오메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8800으로 구동한다. 1천3백만년째 오메가.

● sponsored by OMEGA

fair play

특독한 스웨트셔츠나 니트와 찰떡궁합. 풍성한 아우터 소매 끝에서 슬쩍 보여도 멋스럽다.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가죽 스트랩 워치 8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거 르몽트르 마스터 컨트롤 데이트** 1950년대 인기를 끌었던 상징적인 원형 손시계를 재해석했다. 스틸 케이스의 직경은 40mm, 측면에 이중 광학렌즈를 파인 시를 적용해 고급스럽게 반짝인다. 실버 그레이 스테인 브라스 다이얼 위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위치하고, 7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노보-파 송이 가죽을 매치해 사용스러움과 클래식함을 더한다. 9백35만원, 문의 02-6305-3398

오메가 빌 프라스티지 코-엑시얼 골드 도금 카본섬과 플라시움 처리한 동형 로얄티 인덱스, 2면 처리한 아워-미닛 핸즈, 그리고 깔끔한 6시 방향 날짜창이 조화롭다. 케이스 직경은 32.7mm, 리더 스트랩을 매치했고, 코-엑시얼 크로노미터 칼라버 2500을 장착했다. 4백30만원, 문의 02-511-5797

파이에 알티미라노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라인과 극도로 단순한 다이얼, 가늘고 긴 핸즈와 최상급 배럴링 아워 마커, 그리고 워치캡은 화이트 골드 울트라 신 케이스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도 단번에 알 수 있는 클래식한 위치다. 자체 제작한 파이어 430P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약자가죽을 매치했다. 케이스 직경 38mm, 2천만원대, 문의 02-3479-1802

타미니 타미니 스퀘어 2 핸드 1920년대 타미니 워치 역사에 등장했던 모델 그대로 복원한 디자인으로 가로세로 27mm의 스틸 케이스에 세련된 레이 파인시 다이얼, 그리고 실버 푸드레 컬러 인덱스를 매치했다. 최대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시계 앞·뒷면에는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했고, 블랙 약자가죽 스트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바세론 콘스탄틴 말테 매뉴얼 와인딩 전통적인 토노형 케이스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우아한 곡선이 조화를 이룬다. 36.7x47.6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 샌드블라스트 기법으로 마감한 다이얼,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와 12·6시 방향의 로얄티 인덱스 등이 어우러져 인절감이 느껴진다. 칼라버 4400 AS로 구동하며 재하출 마크를 획득했다. 3천4백50만원, 문의 02-3446-0088

파넬라 루미노스 두에 스틸 케이스는 직경 38mm로 여성이 착용해도 딱 좋은 사이즈. 칼라버 P.9000으로 구동하며 3시 방향의 작은 창으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화이트 다이얼에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 송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린다. 7백59만원, 문의 02-6305-3394

IWC 포르투기저 오트마터 40 다이얼 가장자리 철도 모양의 바 인덱스 마인 스퀘얼과 6시 방향 스몰 세컨즈가 돋보이는 모던한 다이얼이 특징. 18K 레드 골드 케이스, 실버 도금 다이얼, 골드 도금 핸즈와 골드 아메리칸을 장착했다. IWC 자체 제작 82200 칼라버로 구동하며, 6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산토나니의 디브로 알리기에어 스트랩과 함께 한다. 2천1백만원, 문의 02-3440-5876

가르띠에 파사드 가르띠에 직경 35mm의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블루 핸즈를 매치하고 오트마터 와인딩 무브먼트 1847 MC 칼라버를 탑재했다. 가르띠에 최초의 반수 기능을 갖춘 유닉스 워치를 오미주한 디자인에 브레이슬릿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링크 시스템과 직접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링크 시스템 등을 적용해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했다. 7백20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디터 **장완윤**

only one

손 위에 딱 하나의 반지,
그중에서도 단 하나의 스톤만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파이어 알레강스 인카이던트 링** 기정 기본적이
며 클래식한 디자인을 우아하게 재해석한 링, 플래티넘에
약 0.57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했다.
직선적인 밴드 디자인이 다이아몬드의 곡선과 반박임을 극
대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02

블가리 베네치아 컬렉션 트르셀로 슬라이어 링 결혼을 약
속하는 다이아몬드 웨딩 링이 1503년 베니스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통인을 가리는 의미에서 베네치아 컬렉션이라 이
름 지었다. 플래티넘 소재에 리온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
몬드를 세팅했다. 다이아몬드의 컷과 등급에 따라 가격
이 달라진다. 문의 02-2066-0170

부세온 세븐 보행 라피스 라줄리 옐로 골드 원헤드 라지 링
범 마름을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를 사용했고, 끝을 이용해
별의 비늘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8.57캐럿 미드.지트 블루
컬러 라피스 라줄리를 옐로 골드 링에 세팅해 도도하고 우아
한 느낌을 자아낸다. 9백만원대, 문의 02-3213-2246

타사키 루미노 페리도트 링 심플한 18K 화이트 골드 밴드
에 총원한 그린 컬러의 큰캐이브 컷 페리도트를 올렸다. 축
면에서도 각 스톤의 영롱한 색감을 즐길 수 있다. 2백만원
대, 문의 02-3461-5558

타파니 타파니 트루 링 미니멀하고 건축적인 디자인으로,
축면에서 보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부분의 T 형태 디
자인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플래티넘에 타파니 트루 컷 화
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으로 센터 스톤이 손가락
과 가까이 위치하도록 설계해 감칠맛을 준다. 가격 미
정, 문의 02-6250-8620

빈클리프 아델 베를리 컬러 링 하드 스톤을 장식한 베를리
컬러 주얼리 컬렉션의 터키이즈 버전, 화이트 골드 베를리
밴드에 유쾌한 감성을 담은 푸른 터키이즈를 장식했다. 대
담한 컬러 조합은 매혹이 전하는 긍정 에너지를 상징한다.
4백만원대, 문의 1668-1906 에디터 장미윤



1



2

1층세 건축물 바실리카
팔라디오의 균형 잡힌 대칭미와
조형미를 살린 바실리카 팔라디오나 링,
5.34캐럿 루비 18K 핑크 골드, 플래티넘으로
완성했다. 2.15캐럿 이탈리아 명모기의 웅장한 공정을
재현한 팔라초 티에네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팔라초
티에네 링, 11.94캐럿 탄자. 화이트와 18K 화이트
골드, 플래티넘을 매치했다. 3.16캐럿 세 건축한 세계
최초의 실네 극장 타이트로 올림피코를 모티브로
한 타이트로 올림피코 링, 18K 옐로 골드에
1.08캐럿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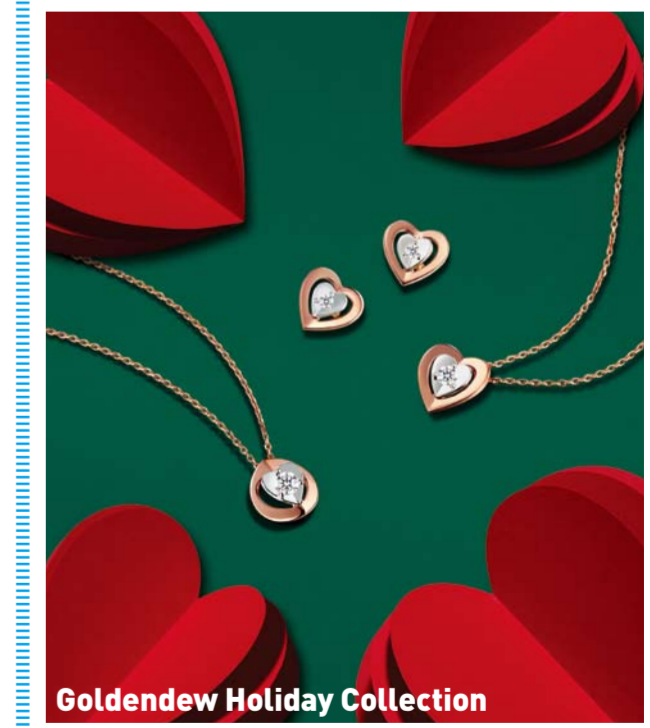
브랜드 탄생을 추억하며 완성한 헤리티지 컬렉션은 다
양한 디자인에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보석만 골라 매
치했다. 골든듀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 최고의 인재
들과 협업해 탄생시킨 이 컬렉션은 빌헬미나 코인 주
얼리, 팔라디오, 그리고 로만틱 가든 등 세 가지 콘셉트
로 나뉜다. 먼저 이름 그대로 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빌헬미
나 코인 주얼리는 31년 전 골든듀라는 이름을 처음 세상에 선
보인 코인 주얼리를 오마주했다. 브랜드 전통을 재해석한 4종
의 다채로운 펜던트로 구성했는데,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다양
한 세대를 아우르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로만틱 가든은 주얼리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유색 보석의 세계를 담았다. 마치 정원에 피
어날 꽃을 손 위에 옮긴 듯한데, 화려한 네오로만틱시즘 디자인을 주얼리
로 표현해 눈이 즐겁다. 마지막으로 이번 헤리티지 컬렉션의 하이라이트인 팔
라디오.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주얼리 도시 비첸차를
여행하며 받은 영감에서 시작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와 그의 작품들을 주얼리로
재현한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비첸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바실리카 팔라디오나, 르네상스 시대 티에네 가문의 궁
전인 팔라초 티에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실네 극장 타이트
로 올림피코 같은 르네상스 시대 유산을 담았다. 완벽한 균형
을 표현한 대칭미와 함축을 의미하는 간결함을 담은 예술적
인 주얼리다. 문의 1588-6576 에디터 장미윤



3

happy 31st Birthday

올해로 31번째 생일을 맞이한 골든듀는 한 겹 한 겹 쌓아온
시간 사이로 담아낸 탄탄한 노하우를 결집한
2020 헤리티지 컬렉션을 선보였다.



Goldendew Holiday Collection

일상의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줄 골든듀 2020 홀리데이 컬렉션 신제품. 영원한 이름
다음으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도 빛을 잃지 않고 사랑 가
득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G와 D를 모티브로 하트를 표현한 입체적
인 프레임의 자다인러브와 실컷 잡힌 하트 모양 프레임의 자다인러브하트. 특히 18K
핑크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가 함께해 다이아몬드가 더욱 돋보인다.

sponsored by Goldendew



정제된 플라워 애플리케이션에 장식되어 시퀀스라운 브릭(Brick) 새틴 컴프스 1백80만원대 마블로 블라니, 문의 02-3443-2113



리바티 연인의 상징적인 플로라 패턴이 돋보이는 구찌 리바티 프린트 롱 드레스 6백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921

winter f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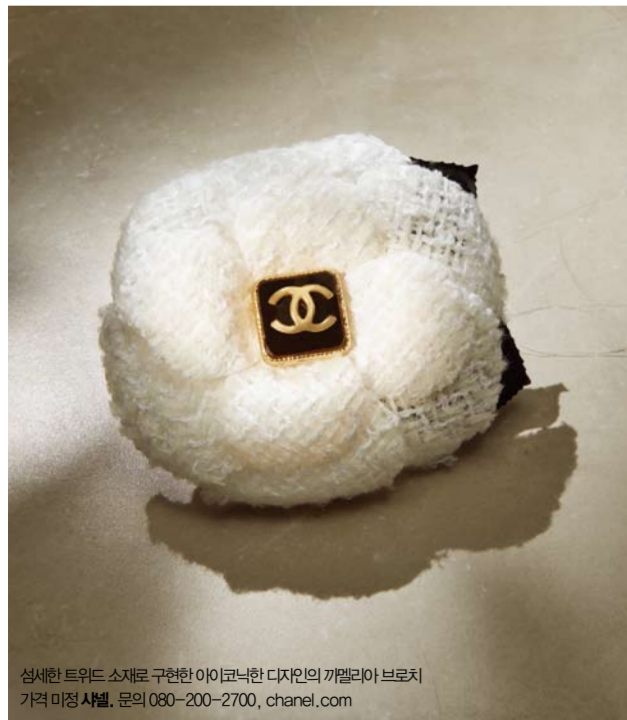
프린트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저 커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패션 하우스의 F/W 시즌 플라워 아이템 7.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핑크 페이즐리 & 플라워 패턴으로 오픈워크 차터한 자수 디테일의 파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7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다양한 크기의 연소가죽 꽃잎으로 완성한 입체적인 장미 모티브의 애플리케이션 컴포스 로즈 에디션 1백87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51-4653



성세한 트윙드 소재로 구현한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캐뉼라아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60-200-2700, chanel.com



코튼 패디드 소재 플라워 프린트 베스트 1백29만원 이자벨 마랑, 문의 02-516-3737



수정적인 모티프의 플로럴 프린트가 이룬 캐시미어·실크 혼방 라지 스카프 스카프 94만5천원 지방시, 문의 02-516-2790 에디타 이베미

festive moment

최상의 품질과 미학을 구현한 제품은 한눈에 들어오는 실루엣에서 그 진가를 조용히 드러내는 법. 살바토레 페라가모만의 세심하고 우아한 이탈리아인 특유의 매력이 깃든 홀리데이 스페셜 아이템을 제안한다. 높은 안목과 까다로운 취향을 지닌 이에게 안성맞춤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SALVATORE FERRAGAMO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레드 컬러 비바 보우 백 1백50만원대, 블랙 스웨이드에 골드 톤 힐로 고급적인 면모를 살린 하우센 슈즈 80만원대, 칸켈라라란 매력을 뽐내는 비바 보우 백 1백80만원대.



견고한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마고 백** 2백20만원대, 크리아 익스클루시브 컬러로 선보이는 **마고 플러셔** 1백30만원대,
간치니 장식에 고급 디테일로 번주를 준 **블로 슈즈** 90만원대.

시그니처 디테일로 클래식한
미감을 완성한 **스튜디오 백**
2백70만원대, 플로럴 패턴을 입힌
마고 백 2백60만원대, 화려한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해담의 슈즈**
1백10만원대.



견고한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마고 백** 2백20만원대, 크리아 익스클루시브 컬러로 선보이는 **마고 플러셔** 1백30만원대,
간치니 장식에 고급 디테일로 번주를 준 **블로 슈즈** 90만원대.

가죽의 질감에서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리바이벌**
비즈니스 백 1백60만원대, **클래식**
벨트 50만원대, **열은 브라운 컬러가**
돋보이는 **포트랜드 슈즈** 90만원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슬립 윙렛** 60만원대, **네이비와 그린 컬러의 세련된 조합이** 돋보이는 **보그 5 스니커즈** 80만원대,
수트 스타일에도, 캐주얼웨어에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 **앤슨 스니커즈** 80만원대, 아이코닉한 로고를 자랑한 **리바이벌 간츠오 윙렛** 30만원대,
모두 **삼바토레 페라기오**, 문의 02-3430-7854 에디터 이주이

비대칭 라인미 톤보이는 레드 드레스 80만원대
 보스, 스웨이드 가죽으로 안상한 벨 비버에 프린지
 퀴츠 부츠 블랙 4백45만원 로저 비비에, 로즈
 골드 톤 클레이팅 스파클링 댄스 다이얼 업 이어링
 29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핑크 골드 소재 지디
 카렉션 네크리스 99만원 굿드류, 살버 소재 에르메스
 해몽스 컬렉션 네크리스 8백30만원대, 안슨 겹치에
 착용한 청기 링 1백18만원, 오븐칼에 착용한 로즈
 컬러 에나멜 밴글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안팎에
 착용한 브라스 소재 핵스 밴글 11만8천원, 체인
 디테일 이두르 브레이슬릿 9만8천원 모두 올세인츠,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레드 골드를 조합한 파인
 주얼리 레이다메틱 링 2백만원대 오메가.



(뷰티) 셀투라 콤플렉스외 플라톤농 안티 펩타이드 성분외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채우고
 컨디션을 개선해주는 플래티늄 래어 오드-레주베네이션 아이 얼룩사어 15ml 가격 미정
 리프라이 02-511-6626, 블랙, 실버, 화이트 등 세 가지 매트 & 세틴 텍스처로 구성된 블랙
 투 라이트 필레트 3g 7만7천원대 지향시 080-801-9500, 림 추출물과 톱카 빈, 암브록스가
 어우러진 팬탈리곤스 로드 조지 75ml 37만원 팬탈리곤스 080-363-5454, 싱글한 오렌지
 향과 부드러운 백향, 섹시얼한 장미 향을 느낄 수 있는 뷰티풀 업솔류 x 앤디 위클 리미티드
 에디션 50ml 14만3천원 에스티 로더 02-6971-3212, (주요품)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오피스 로 맨드 모양을 형상화한 팬티드 카르파에 링 3천4백50만원, 레거 골드
 파니싱 메탈과 유리로 표현한 다이아몬드 카르파에 스노우 글로브 1백52만원, 화이트 골드와
 그레이 자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탄자이트 비즈로 장식한 자유를 되찾은 새 네크리스
 29만6천4백만원, 오렌지 레드 컬러 선홍와 오피스 로 컬러 조합이 톤보이는
 칼럼 브레이슬릿 39만 천4백만원 모두 카르파에 1566-7277



Gift IDEAS

화려한 홀리데이 패키지,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 로맨틱한 주얼리와 시계. 낭만과 설렘을
 안겨줄 특별한 선물 리스트가 여기 있다. 연말을 위한 근사한 기프트 아이디어.
 photographed by lee sang hun(model), park jae yong, choi min young(product)

카프 스킨으로
제작한 원티 디안 부츠
2백90만원대
로코파아나
02-546-0615.



클래어 폰 케이스 보르도 15만8천원
조이그라이슨 080-202-2002.

Fashion gift ideas



블랙 시퀸 톱 2백65만원 **발렌티노** 02-2051-4653.
인피니티 트윈스트 골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자황시** 02-546-2790.
메탈, 스트라스, 글라스, 레진을 조합해 완성한 사넬 크루즈 컬렉션 브레이슬릿,
레미네이트드 램 스킨 소재 센들 모두 가격 미정 **사넬** 080-200-2700, chanel.com.



선명한 레드 컬러로 선보이는 약아기족 스물 알렛 1백6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2-516-9517.



카프 스킨으로 완성한 첼시
부츠 1백99만원 **브리오니**
02-3274-6483.



클래식 남성 코듀로이 코트 6백4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4-2931.



세미 오픈드 원티에 구스 다운과 패더로 채운 퀴카타 다운 재킷 2백16만원 **페트레이** 02-3213-2366.



오버사이즈 프레임 헤리티지 선글라스
56만원 **론진** 02-310-1597.

양가죽 소재 앵글부츠
1백88만원 **파비아나 필라피**
02-6960-0831.



플리워 이어링 1백48만원 **보체가 베네타** 02-3438-7682.



레드 가죽 글라스 스톤으로 장식한 우븐 골드 마감
메탈 미니 클러치 2백39만원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양가죽 소재 화이트 코트 1천5백만원대, 블랙
송아지가죽 벨트 스트랩 50만원대, 필라폼 소재 벨트 버클
30만원대, 스웨이드 송아지가죽 소재 부츠 2백60만원대,
크로스 보드로 연출한 양송 송아지가죽 소재 델라
가발라리아 백 4백30만원대, 실버 소재 에르메스 헤몽스
컬렉션 이어링 1백4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레드 컬러
클래시 톱 센들 백 2백만원대 **살비토레 페루기오**. 옐로
컬러 피카부 1 SEE YOU 포세트 3백30만원대 **펜디**. 캐럿
카프 스킨 소재 블루 가브리엘 PM 백 5백85만원 **모아나**.
미니 주얼 사넬 백 2백28만원 **알렉산더 맥퀸**. 양가죽
그린 컬러 티 타워리스 백 1백79만원 **토즈**. 양가죽
스몰 핏팅 램 스킨 몰라 백 2백19만원 **비버리**. 호브
스타일 내추럴 파이론 스를 재킷 1961백 3백30만원 **구찌**.
박스 모양 파우더 핑크 컬러 펜디 백 1백만원대 **펜디**.



오렌지 컬러 시련 드레스 3백만원대 **알렉스 파리 by 네타포르테**.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모조비크산 쿠션 컷 레드 루비로 포인트를 준 파이제 트레저 나크라스 1억5천만원대, 파이제 트레저 아이링 2억2천만원대 모두 **파이제**. 로즈 골드에 카블리언으로 장식한 베를리 컬러 링 3백만원대, 옐로 골드에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를리 컬러 비트윈 더 팡가 링 1천만원대 **반달리프 아템**. 핑베리한 시마링 링스틱 루즈 아레브르 루비즈 #511 매트 레드 3.5g 5만2천원 **구찌 뷰티**.



REPLICA
REPRODUCTION OF FAMILIAR SCENTS AND MOMENTS OF VARYING LOCATIONS AND PERIODS
Originally:
.....By the Fireplace.....
Provenance and Period:
.....Chamonix, 1971.....
Fragrance Description:
Burning wood and chestnut
Style Description:
Female and Male Fragrance
Maison Margiela
PARIS

우디 앵거리 베이스의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가 특징인 레플리카 #바이 더 파이어플레이스 100ml 15만원 **메종 마르지엘라** 080-363-5454.



피부 탄력과 탁월한 파밍 효과를 선사하는 스킨 카비아 럭스 크림 프라이머 50ml 65만2천원 **라프라이데** 02-511-6626.



생동감 넘치는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된 퓨어 컬러 연비 립스틱 원티스 3.5g X 5, 6만원대 **에스티 로더** 02-6971-3212.



바이올라 고주파 에너지, LED 레드 라이트, 열에너지 기능을 갖춘 고주파 피부 관리기 실론 페이스타이트 2.0 55만원 **실론** 080-246-1234.



우디와 파출리가 어우러진 프레스시 우디 푸저르 계열 향수로 닉 조나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실버 에디션 75ml 82만9천원 **존 바버토스** 080-363-5454.



Beauty gift ideas

다들 루즈 꾸뛰르 장렉션 골드 나이트-코프레 세트 3.5g X 6 21만5천원대 **다들** 080-342-9500. 룩스 투 앤비 메이크업 필레트 세트 11만원대 **에스티 로더** 02-6971-3212. 벨 드 뒤 EDT 200ml 12만원 **프리고너르** 080-363-5454. 네일 폴리쉬 르 베르니 #773 체인 도르 3.5g 3만5천원 **샤넬 뷰티** 080-332-2700, chanel.com.



오 뒤 스타일로 오 드 베르누프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00ml 30만원 **시슬리** 080-549-0216.



로즈의 영양 성분을 가득 담은 다들 프레스타지라 마이크로-필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30ml 31만9천원대 **다들** 080-342-9500.



로즈 딥 하이드레이션 토너 100m, 로즈 딥 하이드레이션 페이스 크림 30ml, 로즈 슬리핑 마스크 30ml 로 구성된 데이 & 나이트 하이드레이션 세트 8만3천원대 **프래쉬** 080-822-9500.



세라마이드 복합체와 장미 추출물, 퓨어 울레오 오일을 담았다.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제공하는 입술휘 바이 앵클 12ml 20만원대 **랑콤** 080-022-3332.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레포크 네크리스
스물 사이즈 5백19만원
다이아니 02-515-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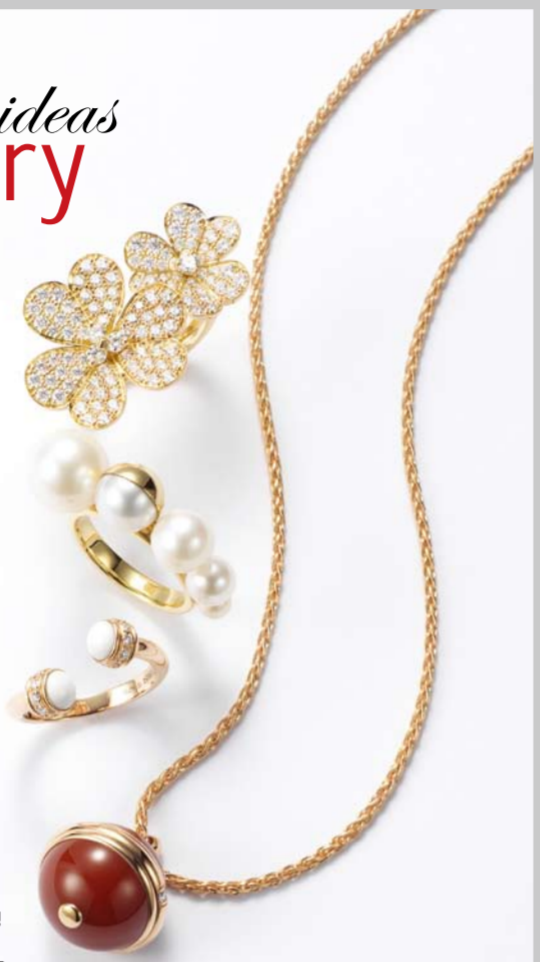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블랙 스파이클을 세팅한
온브로 벨린느 링
3천2백만원대 프라데
02-514-3721.



로돌라이트 가넷과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핑크 골드 세팅 보렐 브레이슬릿 1천만원대 부쉬론 02-6905-3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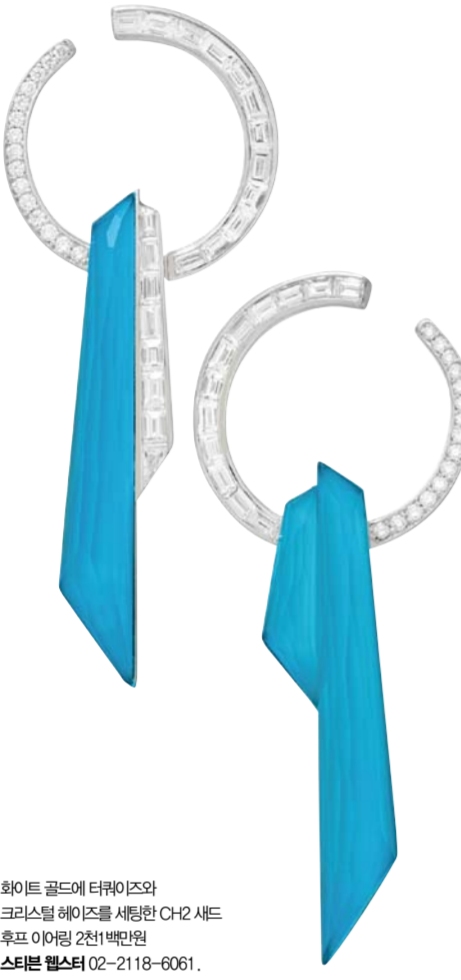
High gift ideas jewelry



히트 모양 옐로 골드 꽃잎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프라볼
비트윈 더 핑가링 2천만원대 반달리프
이젤 1668-1906. 옐로 골드와 담수
진주로 완성한 M/G 타사키 옐 옐로
골드 링 2백만원대 타사키 02-3461-
5558. 포제션 화이트 칼세도니 오픈 링
3백만원대, 카날리언 팬던트로 완성한
포제션 팬던트 네크리스 6백만원대 모두
파이제 02-3479-1802.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탄자, 화이트, 사파이어,
그리고 진주로 장식한 타이 & 다울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음 하이 주얼리 02-3480-0104.



화이트 골드에 터퀴이즈와
크리스탈 헤이즈를 세팅한 CH2 세트
후프 이어링 2천1백만원
스티븐 웹스터 02-2118-6061.



화이트 골드에 총 5백1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코에
칼렉션 네크리스 가격 미정
소메 02-3442-3359.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유색 주얼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레로 팬던트 3천1백만원대
소파드 02-6905-3390.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링 8백만원대
불가리 02-2056-0170.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링 가격 미정
샤넬 확인 주얼리 080-200-2700, chanel.com.

트라이베이트 소재 그린 세팅 드레스 가격 미정
올로 말프 로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레포크 이어링 5백99만원, 원손 검지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조합한
벨레포크 링 1천49만원,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한 화이트 골드 벨레포크
링 7백49만원 모두 다이아니, 메시 디자인 옐로
골드에 템플드 에메랄드 비드를 더한 옐사 파라티
메시 비브 네크리스, 원손 약지에 착용한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티파니 T1 와이드 플
다이아몬드 링, 볼드한 옐로 골드 옐사 파라티™
스물 본 카프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크리스탈 소재
생-루이 토미 칼렉션 샌버안 잔 20만원대 에르메스.



미니 스텝군 드레스 89만원 누메로 뱀무노, 화이트 프레스 워터 펠라 비칸디 글라스 펠로 장식한 디올 트라이앵글 이어링, 허트 세이프가 돋보이는 디올 트라이앵글 이어링, 볼드한 골드 채인 장식의 CD 네이비 브라이덜링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퀵 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한 여덟 가지 컬러 스트랩을 한 세트로 구성한 돌체비타 워치 가격 미정 론진, 문사인™ 골드 다이얼과 38개의 풀 질 다이아몬드 조합으로 선보이는 드 빌 트래저 워치 36MM 3천만원대, 약자에 적합한 화이트 골드에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인 주얼리 컨스텔레이션 링 4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헤어 오종오
메이크업 오가영
모델 케이트(@M 디렉티브)
어스틴트 조소희
에디터 장라윤, 이주이



보스 02-515-4088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스와로브스키 02-6402-1725
골든듀 1588-6576
에르메스 02-542-6622
올세인트 070-4757-7604
오메가 02-511-5797
살비토레 페라카모 02-3430-7854
팬디 02-514-0652
모이나 02-596-9620
일렉산더 맥퀸 02-6905-3472
토즈 02-3438-6008
바버리 080-700-8800
구찌 02-3452-1921
일렉스 페리 by 네타포르테 00798-44-351-351
피아제 02-3479-1802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구찌 뷰티 080-850-0708
폴로 할프 로렌 02-6004-0220
디미아니 02-3213-2141
타피나 02-6250-8620
누메로 뱀무노 02-6905-3480
디올 02-3480-0104
론진 02-3479-1940

Watch gift ideas

지름 34mm 핑크 골드 케이스 속 섬세한 기묘세 패턴 위 플로럴 숫자 인덱스와 낮/밤 인디케이터를 담은 라바루 나인 & 데이 미디엄 3천2백10만원
에거 르콜트르 02-6905-3398, 지름 44.2mm 로즈 골드 케이스 안에 더블 문 페이스와 파페주얼 캘린더로 가득 채운 포르투기저 파페주얼 캘린더 워치 4천9백90만원 IWC 02-3440-5876

케이스 사이즈 52.63 X 34.40mm의 RM 037 레디 2억원대 **리차드밀** 02-512-1311

에제리 문페이즈 주얼리 2억4천2백만원
바세린 콘스탄틴 02-3446-0088

36.5 X 28.45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 레인드 네이플 8918.4천4백만원대 **브레게** 02-3149-9659

케이스 지름 38mm 블루레드 컴플리트 캘린더 2천9백만원대 **블랑팡** 02-3213-2261

두께 6.40mm, 지름 40mm의 옥토파-씨모S 1천4백만원대 **블가리** 02-2056-0170

케이스 지름 32mm의 라임라이트 컬러 7천만원대 **피아제** 02-3479-1802

기묘세 로즈 골드 다이얼 스위트 앵겔브라 2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블랙 세라믹과 스틸 케이스를 조합한 J12 블랙 가격 미정 **샤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극도의 간결함과 균형미로 시선을 사로잡는 슬림 데르마스 GMT 2천만원대 **에르메스** 02-542-6622

지름 36mm의 스틸 케이스 스타 레가시 문페이즈 데이트 5백16만원 **몽블랑** 1670-4810

오이스터 스틸 케이스는 지름 36mm, 칼리버 3230을 탑재한 오이스터 파페주얼 36 엘로 다이얼 버전 6백만원대 **롤렉스** 02-2112-1251

in the story

이상적인 형태와 비율, 과감한 볼륨과 소재 조합, 우아하고 강한 존재감.
스토리 백(The Story Bag)에 관한 이야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지난 2020 S/S 시즌 알렉산더 맥퀸은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매력이 깃든, 여성을 사로잡는 백을 만들어냈다. 스토리 백으로 불리는 이 가방은 오랜 시간 쌓아온 이카이브에서 발견한 브랜드의 가치와 스토리를 나누는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부드러운 소재와 멋들어진 칼링 패턴, 청아한 체인 스트랩과 대담한 메탈 장식 등 각각의 대조적인 요소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재구성했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인 스토리 백은 메탈 핸들에 손을 기워 연출하면 알렉산더 맥퀸 특유의 시크한 느낌이 살아 있는 클라치가 된다. 여인의 과감한 면모를 부각하고, 용감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블랙 오버사이즈 칼링 스토리 솔더백 3백65만원. 문의 02-6905-3472 에디터 **이유이**

●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명쾌한 디자인에 대담하고 세련된 감각을 더한 도시 여성을 위한 트레이닝화, 하이퍼액티브 컬렉션. 카프 스코에 메모리폼 인솔과 6.2cm의 러버 아웃솔을 매치했다. 84만5천원 **호간**.



하이퍼액티브 컬렉션 84만5천원 **호간**.



urban chic

디자인, 혁신 그리고 기능.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이탈리아 럭셔리 풋웨어 브랜드 호간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담은 슈즈를 선보인다. 도시 건축물에서 실루엣을, 자연에서 컬러를 따와 완성한 하이퍼액티브 컬렉션과 인터랙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인터랙션 컬렉션 66만원 **호간**.
문의 02-540-0523
에디터 장라윤



● sponsored by HOGAN

질감한 디자인에 최고급 소재를 더한 스니커즈, 인터랙션 컬렉션. 하이탑 디자인이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칼라 볼륨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스웨이드와 카프 스킨 소재를 믹스했고 5cm 러버 아웃솔을 매치했다. 66만원 **호간**.



가디언 5.0(Guardian 5.0)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앞티를 포켓과 탈착 가능한 렉스 퍼 칼라 등 실용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이 제품은 아웃도어 웨어로 제격이다. 와이셔츠 여닫을 수 있는 양날 지퍼와 단추로 이중 잠금이 가능하다. 2백58만원.



쿤토(Kunto)

클래식한 무튼 재킷 스타일로 선보이는 다운 재킷. 카키와 브라운, 베이지 계열의 어스 컬러 팔레트로 빈티지한 무드를 완성했다. 허리에는 길이 조절 가능한 드래그 스트랩이 있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1백 68만원.



● sponsored by PEUTERE

warm & fuzzy

차가운 겨울 공기와 마주할 때면 반사적으로 도톰한 외투에 손이 가기 마련.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페트레이는 최상의 퀄리티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방한 아이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다이슨(Daison)

오버사이즈 핏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매트 스트레치 나일론 소재로 완성한 가볍고 편안한 아이템. 탈착 가능한 폭스 퍼 트림으로 실용적인 아번 스타일을 완성한다. 2백38만원.



우주마티(Uzumati)

여우 털을 트리밍한 후디와 특수 레진을 입힌 새틴 짜임으로 워스 재킷 같은 효과를 내는 피커. 우수한 방수 기능을 갖췄다. 2백38만원. 문의 02-3213-2366 에디터 **이주이**



● sponsored by CHANEL



time to repair

잠자는 동안 수천 개의 오일 마이크로 버블이 피부 감각을 깨워주는 나이트 트리트먼트,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뉴. 바르는 순간 세럼의 산뜻함이 느껴진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수블리마지의 시그니처 성분, 바닐라 플라-몰리아와 네롤리 플로리엔

매해 조사하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언제나 OECD 평균 이하. 사람이 잠을 잘 못 잘 때 본인의 가장 나쁜 습관이 타인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찌푸드란 몸과 멍한 눈빛은 물론,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도,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도 쉽지 않은 수면 부족의 결과들. 이런 증상은 고스란히 얼굴에도 드러난다. 피부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어 메커니즘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밤에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균형을 잃는다. 피부결이 흐트러지고 인색이 맑지 않아 푸석해지는 것. 이런 점에서 샤넬의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뉴는 바쁜 현대 여성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뷰티 인생템이다. 몇 시간을 자더라도 피부가 마치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처럼 본연의 개선 기능을 강화해준다. 겉으로만 촉촉하고 쫄쫄하게 보이도록 눈속임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기능해 에너지를 채우고 활력을 깨우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 힘의 중심에는 수블리마지 라인 최초로 특허 받은 두 가지 발효 활성 성분,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네롤리 복합체가 있다. 피부 정화 작용을 개선하고, 항산화 보호 작

용을 강화하는 이 두 성분은 피부 균형을 바로잡고 활력을 깨워 스킨케어 사이클을 유지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는 꼬투리에서 추출한 워터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줄기세포가 피부 개선 과정을 도와주며, 오일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등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성분이다. 피부에 닿으면 물처럼 가볍다가 산뜻한 오일 포뮬러로 바뀌어 실기 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독특한 텍스처도 매우 감각적이다. 오일 포뮬러인데도 오일리지하지 않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으로 밤 피부를 감싸주는데, 베게에 그 어떤 잔여물도 묻지 않아 더욱 마음에 든다. 숙면을 취한 듯 매일 아침 영양과 수분감으로 활력 있고 탄탄하고 빛나는 피부를 느끼고 싶다면 오늘부터 1일, 매일 저녁 세럼 전 단계에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뉴를 발라보자.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특별한 나이트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날에는 수블리마지 레쌍스 폼데멜랑,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크림(또는 수블리마지 라 크림) 순으로 함께해 나이트 타임의 리추얼을 완성해도 좋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김리윤**

AN APPLE A DAY. AN IWC FOREVER.



—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Ref. 5033:** 포르투갈 선원들의 대담한 탐험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했으며, 그 영웅적인 시대가 남긴 가치 있는 유산이 바로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이 제품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한 디자인과 함께,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오토매틱 무브먼트, 그리고 2499년까지 세팅 되어 있는 날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선구적인 기술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위대한 타임 피스는 그 전설적인 지위를 영원토록 유지할 것입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고객님의 국제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세요.
IWC.COM/MYIWC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Mechanical movement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IWC-manufactured 52610 calibre · 7-day power reserve with display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s for the date, day, month, year in four digits and perpetual Moon Phase · Anti-reflective sapphire-glass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3 bar · Diameter 44.2 mm · Alligator leather strap by Santoni

IWC.COM/KO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82 2 3440 5876

IWC
SCHAFFHAUSEN